

(축사)

불법 홍포는 물론 교화와 사회사업, 그리고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하시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성운대사의 서예전시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소리 없는 봄의 향기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듯, 소리 없이 그어 내린 성운대사의 일필휘지(一筆揮之)가 생명의 기운으로 다가온 듯합니다.

일필휘지에는 마음이 담겨있고, 그 마음은 좋은 말씨가 되어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언행으로 피어납니다. 한 붓으로 써 내려간 글에는 호흡도 한번 이요 마음도 하나입니다.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,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도 둘이 아닌 것처럼 일필휘지에는 밝은 지혜가 있습니다.

보는 사람에게는 욕심에 찬 마음을 비우고 불법의 향기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. 눈으로만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운을 갖게 될 것입니다.

이번 성운대화상의 일필휘지 서예전시회가 무명 속에 간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숨에 풀어주는 귀한 인연의 고리가 되기를 바라며 사부대중의 공덕을 잇는 참다운 인연이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56(2012)년 4월 22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